

# 전남 정 담긴 체험형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개발

### 전남도, 나주 이슬촌·광양 도선국사·장성 별내리 마을 등 3곳 선정 마을사업 컨설팅 전문가 멘토 지정...체험 프로그램 개발·고도화

전남도가 단순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상품이 대부분인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에 매력적인 전남의 자원, 경관, 체험, 인심 등을 함께 버무린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기부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도시민들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제2, 제3의 고향으로 삼아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전남의 푸근함과 정겨움을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4일 "도시재생사업과 마을사업 컨설팅으로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2024년 전남 고향마을 활성화사업 멘토로 지정, 각 마을 체험상품을 고도화해 매력적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자의 고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제공에서 벗어나 직접 고향에서 체험하고 즐기는 체험상품과 서비스 중심의 답례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체험형 기부금 답례품 사업을 추진, 지난 9월 나주 이슬촌 마을, 광양 도선국사 마을, 장성 별내리 마을을 선정, 현재 답례품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 이슬촌 마을은 김치 체험프로그램, 노안 성당을 활용한 신규 체험 행사 개발 및 고도화를 중심으로 멘토링을 하고 있다. 마을 지원 홍보, 마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관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광양 도선국사 마을은 현재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인절미 체험, 전통 손두부 체험, 매실 쌀강정 체험, 부채 한국화 그리기 체험 등 전체 체험 행사를 체계화·고도화해 마을 공동 브랜드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장성 별내리 마을은 천문 체험 프로그램, 수제 맥주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 사업 추진 프로세스를 구축, 고향마을 답례품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도록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마을별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개발·고도화, 마을 내외부 환경 조성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마을별 답임 멘토링을 지원, 사업 추진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마을을 대상으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해 마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개발한 체험상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해 마을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 시스템이나 농협은행에 기부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에 60만원 지원

### 지역우수인재·특화동포 대상 정착지원금 지급

전남도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F4-R)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은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 보성군이다.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해 전남도의 추천을 받아 지역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동포(F4-R) 비자를 받은 외국인 주민이다. 이들은 조선업, 식품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종사하며 인구감소지역에 5년간 거주하게 된다. 정착지원금 신청은 현재 거주 중인 군의 외국인 정책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자 모집은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이나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추가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지역특화동포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정책비서관장은 "정착 지원 사업이 전남으로 이주한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 외국 인재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이민·외국인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김영록 전남지사가 4일 광양 성황스포츠크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첫 수소 국제 포럼 개최...수소산업 발전 방안 모색

### 국내외 전문가 등 300여 명 참석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구축 협약도

전남도가 처음으로 수소 에너지와 관련 이탈리아, 일본 등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국제 포럼을 개최하며 전남의 잠재력을 확인했다.

이날 전남도가 주도해 여수·순천·광양, 여수산업단 기업 및 한국남동·동서·서부발전 3개사 등 16개 기관이 '여수·광양 청정수소 배관망 구축 업무협약'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4일 광양 성황스포츠크터에서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남이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수소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전남도와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가 공동 주최해 김영록 전남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에너지기업·연구기관·학계 관계자, 대학생,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 수도 전남'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선 문재도 (사)에너지밸리포럼이 '국내 수소 정책 및 전망'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이탈리아 안젤로모레노 H2IT 이사와 일본 요스케 후지이 NEDO 책임연구원이 각각 '이탈리아 수소정책 및 유럽 수소 운송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현황', '일본 수소기반전략 추진현황 및 한-

일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후 한중희 한국에너지공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수도 전남'을 주제로 폐널토론을 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양만권 화학·철강 중심 국가산단을 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하고, 동·서부권에 조성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과 연계해 청정수소 생산·발전단지를 조성해 전국 최초 청정수소 공급 배관망을 설치하겠다"며 전남을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은 2024년 전남도 신규시책으로 올해 광양시를 시작으로, 2025년 순천시, 2026년 여수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디지털 아티스트·작가 지망생 창작 지원"

### 디지털아트컬처랩 운영 랩 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광주시 미디어아트 거점 센터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G.MAP·지맵)이 디지털 아티스트·작가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아트컬처랩'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4일 지맵 등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간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별로 ▲인큐베이팅 랩 ▲프로젝트 랩 ▲리서치 랩 ▲시티즌 랩 ▲유스 랩 등 5가지로 구성돼 있다. 각 랩은 지원 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디지털아트컬처랩'은 창작자와 시민이 참여

는 개방형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을 통한 디지털 아트 분야 창·제작자를 육성하고 지맵에서 선보일 콘텐츠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제작 거점 도시 조성의 궁극적인 목표다.

'인큐베이팅 랩'은 디지털아트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작가 지망생 등 15명을 선발해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아트 창작활동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활용 기술·전문 지식 획득을 위한 고품질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프로젝트 랩'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과 신진작가 육성이 목표이며, 디지털아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지맵은 시민 대상 '시티즌 랩'과 학생 대상 '유스 랩'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디지털아트 분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아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리서치 랩'은 디지털아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다. 지맵 자문단은 이날 중 구성을 완료하고 광주를 디지털아트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아젠다 발굴 등을 할 예정이다.

이경호 지맵 센터장은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아트 글로벌 창·제작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디지털아트에 열정을 가진 작가와 미래 예술가들에게 이번 컬처랩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